

지지율에 울고 웃고... 민주당 “갑갑하네”

安風위협 속 호남서도 밀려 위기감 고조 같은 날 여론조사 “반등” “저조” 엇갈려

그동안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실제도 없는 ‘안철수 신당’에 밀려 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시름이 깊어졌다. 아직 창당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은 가상의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결반

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부지거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덧발’인 호남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위기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 화두로 내세운 ‘을(乙)을 위한 정치’는 민주당이 내세운 승부수 중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호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를 실시해 지난 4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 13일 19.3%로 최저점을 찍은 뒤 서서히 반등해 지난 3일에는 23.4%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성적표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앞

으로 (지지율 상승의) 과파를 키질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는 안철수 신당이 설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안철수 신당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JTBC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4일 전화 여론조사(700명·95% 신뢰수준에 ±3.7%) 결과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30.3%에 달한 반면, 민주당은 14.0%에 불과했다. 이전의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국민이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그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고(故) 김근태 삼일고문 계열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정기 조찬 모임에서 당의 위기 타개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 참석 의원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뒤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몰라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황우여-김한길 13일 첫 공식 회동 전두환 추징법·갑을 문제 등 6월국회 의제 집중 논의할듯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사랑장에서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법을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 양당 대표 간의 첫 공식 회동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6일 “황 대표와 김 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법이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각종 법안과 국회 기구 신설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양당 대표가 주로 6월 임시국회 의제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안다”면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처리키로 한 약속을 지키자는 제안도 함께”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만간 양 대표 측 관계자가 만나 의제 등을 놓고 회동 전 사전 교감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서는 우선 김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와 ‘역외탈세 및 조

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구성,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 국정조사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초 이달 초로 예상됐다가 미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날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남북정체도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대표의 이번 첫 회동을 계기로 ‘6인 협의체’가 복원될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4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매월 한 차례 모여 현안을 협의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으나 황 대표를 제외한 양당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 58회 현충일 추념식 여 “안보” 야 “평화” 강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전국 충혼탑 등에서 일제히 거행돼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서울현충원 추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3부요인, 정당대표, 헌법기관장, 국가유공자단체장, 참전유공자,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순국선열과 보훈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해서 국가가 그 공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유공자와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이장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면서도 새누리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국가안보를 강조한 데 비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반도 평화와 이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에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도 대화, 둘째도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남뉴스

與, 쌀 목표價 인상·관세화 유예기간 대책 주문

새누리, 세종청사서 농림부·해수부 당정 협의

새누리당은 지난 5일 쌀 목표가 현실화를 비롯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 공약가계부상의 농림분야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잇따라 당정협의를 하고 쌀 목표가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농림

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를 4000원 인상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농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소시장장급(MMA)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추가 유예를 할 것인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을 할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FTA(자유무역협정) 보완, 농작물·과수의 병해 피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해양수산부와 의 당정협에서 북극항로 읍서버 자격 취득 이후 이사회 내 워킹그룹 참여, 북극항로 연내 시범 운항, 북극해 항로의 연안항만 거점개발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보고받았다.

당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다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 자행 국가 목록에 등재된 것과 관련, 실질적 피해 예방을 위한 과태료 대폭 인상 등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협의했다.

/연남뉴스

공공의료 국조특위 안철수 ‘고민’

민주당 참여 제안에...여야간 정쟁 휘말릴까 걱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안 의원에게 공공의료 국조특위에 참여할 것을 직접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날 안 의원은 전 원내대표를 방문, 6월 임시국회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교환했다. 당시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에게 법안 발의 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국조특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안 의원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의 관계자는 6일 “국조특위는 여야가 상의해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인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하겠다, 말겠다 할 문

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여야 간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참여 여부를 놓고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6월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안 의원으로서 국조특위 참여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여야 입장이 갈리는 정치현안인 만큼 여야 간 정쟁에 휩쓸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의원은 국조 특위에 참여한다면 민주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라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주최: 주재정 ● 고재주

진료시간: 평 일·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전화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관 제(081)30-26-36호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 영광 ● 어등산골프장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5-0933

경매 뉴스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전수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전수합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합니다.

주, 오천옥선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